

한국전쟁 중의 북한 억류 900일

해설 및 번역 署劍 / 강희대학교 교수·정치학

아래의 글은 6·25동란시 부하직원 두 명과 함께 서울에 잔류하였다가 북한으로 납치되어가서 3년에 걸친 억류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휠트公使가 본국 정부에 제출한 그간의 자기 체험을 기록한 보고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문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의 보고서는 자신과 동료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다룬 것이고, 두번째의 것은 억류생활을 하면서 관찰한 戰時의 북한실정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들은 모두 영국 공문서 보관소(Public Records Office)에 보존되어 있다가 다른 문서들과 함께 최근에 공개된 것으로서 그간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흥미를 자아내는 기록들이다. 특히 戰時에 UN군의 맹렬한 폭격 아래서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전시체제의 운영에 관한 편린을 엿볼 수 있고 어떤 것은 일상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도 없지 않다.

휠트公使가 서울이 인민군에게 함락되리라

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대로 잔류하여 억류생활의 고초를 겪은 배경에 관하여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몇년 전 한·영 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영국대사관의 직원 한분이 쓴 韓·英관계의 회고에는, 휠트公使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측이 그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존중해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써어 있다. 휠트자신은 아래의 보고서에서 자기로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고」 공사관에 남아 있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나 휠트公使가 취한 행동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 저면에 그 당시에 영국 외무성에 한국의 장기적인 전망에 관한 비관론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태평양전쟁이 끝난 이래 영국 외무성의 한반도에 관한 지배적인 생각은 결국 이 지역이 곧 사화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한반도가 소련에 너무 인접하여 있고, 소련으로서는 이 지역을 자기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 일관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며, 이러한 소련의 기도를 막을 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서 한국의 국내사정은 국민들이 「미숙」하여서 외세에 대하여 독립과 아울러 민주적인 질서를 지킬 능력이 미흡하고, 이 지역에서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미국은 한반도에 뚜렷한 이해관계가 없고 더욱이 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지 못하여서 결국 한국은 소련의 세력권에 흡수되고 말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영국이 대한 민국을 승인하고 나서도 이런 장기적인 전망에는 변함이 없었다. 휠트公使는 「국교수립」 이전부터 한국에 근무하였고, 영국과의 公使

級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公使로서 부임하였기에 한국의 실정에는 밝다고 하는 편이었는데, 그 당시 영국측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입을 받거나 아니면 내부침식에 의하여 붕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다.

동란이 나기 전해인 1949년 말 휠트公使가 본국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북한의 침입을 받는 경우에 이에 대처 할 능력이 없으며 아마도 하와이 같은 곳으로 정부가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미국의 도움에 나의존하려 하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을 하였고, 그러한 경우에 자기는 이들을 따라 하와이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며 계속 서울에 남아 외교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앞에 언급한 바 휠트公使가 억류보고서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철수하는 것 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한 것도 무의식적으로 그 당시 생각하고 있던 본심을 쓴 것이라고 여겨진다.



6·25 당시 한강 철교를 건너 남하하고 있는 북괴군 팽크부대

몇 가지 덧붙여 언급할 것은 아래 본문에 나오지만 이때에 헐트公使와 함께 북한에서 억류생활을 겪은 영국 외교관 중의 하나인, 副 영사 블레이크(George Blake)는 실은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의 간첩이었고 서방된 이 후에도 계속 외무성 내에서 소련을 위하여 침보 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자 소련으로 도피하여 버린 점이다. 억류장에 소련과 영국 정부의 협상을 통하여 이들이 석방되게 되자 북한의 신문과 라디오는 이들을 회견하고 이들이 북한 측의 좋은 대접에 감사하며 앞으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들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석방된 후 이들은 모두 이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이를 부인하였다.

안소니 이든 외무장관 귀하

외무성
런던, S.W.I.

1. 귀하에게 북한에서 겪은 본인의 억류생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록한 날짜와 지명 등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며 억류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events)들을 기록할 아무 수단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가능한 한 정확한 기록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 38°선 상에서 심각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본인이 접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아침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전에도 자주 남북할만한 근거없이 전쟁에 관한 경보를 하고 비명을 지르곤 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무렵에 미국대사관의 한 직원으로부터 북한의 공격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기자회견이 있다. 그 드

었습니나, 그더니 당시 미군이 김일신을 남한 국군이 그들의 방어선을 지키고 있고 중원군이 전선에 충파되었으며 반격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3. 그날밤 10시, 미국 라디오방송국이 모든 미국인 여성은 새벽에 비행기로 떠날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방송했을 때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다소 놀랐습니다.

4. 본인은 이미 여러달 전에 영국시민과 예 이레 혹은 영연방 국가의 남녀시민들을, 미국 관계기관이 만약의 사태를 당하여 그들 국민들을 철수시키게 된다면 언제든지 같이 철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마련을 하여 놓은 바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위의 방송이 나간 뒤 서울에 있는 모든 영국여성들에게 한국을 떠나도록 충고하였습니다. 구세군의 로드 부인과 성공회(Church of England Mission)의 메어리 클래어 수녀, 이 둘은 그대로 남기로 결정했으나 여타의 다른 사람들 모두는 떠날 수 있는 기회에 떠났습니다.

5. 6월 26일, 월요일 내내 미국대사관과 한국관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정보들이 너무 상반되는 것이었기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영국방송공사(B.B.C.)의 방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명확한 뉴스였으며 본인은 곧 사태의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최상의 방법은 다이얼을 런던으로 돌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6. 영국방송으로부터 소식을 듣고난 후 본인은 미국대사관에서 여전히 표명되고 있던 수많은 낙관적 견해를 의심하게 되었고 북한군 기계화부대가 갑작스럽게 전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염려하여 암호와 비밀문서를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6월 26, 27 일간에 미 대사관은 철수를 위해, 27일 아침 10시까지 남아있는 남녀 국민들 모두에게 대사관 내에 집결하도록 지시사항을 방송했고, 본인은 이 지시사항이 아직 남아있는 영국인·영연방인 그리고 남부에 이래시민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방송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나도록 하라는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충고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드부인을 포함하여 거의 모두가 이의없이 철수했으나 로드 판무관 자신과 성공회의 메어리 클래어 수녀와 헌트신부는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과 더불어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8. 그러나 성공회의 세실 쿠퍼 주교는 영국 성공회 선교사업 중인 당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와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9. 수도권 밖에는 3명의 또 다른 성공회의 성직자가 있었으나 본인이 보기로 그들은 모두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10. 후일 본인이 석방된 후 그들 중 차드웰 신부와 포셋 신부 두 사람은 별고없이 지냈음을 알았으나 리이(Lee) 신부의 생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1. 성 콜롬반 선교회(St. Columban Mission)의 퀸란(Quinlan) 司教와 크로스비(Crosbie), 카나반(Canavan), 콜리에(Collier) 신부 등 4명의 성직자는 그 당시에 38선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곳이 초기의 북한군의 공격에 휩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들을 돋기 위한 어떠한 조처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퀸란 司教와 크로스비, 카나반 신부는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풀리에 신부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있으나 북한군이 춘천에 입성할 때 것으로 생각됩니다.

12. 그 당시 전반적인 상황 하에서 해야 할 길은 미국인을 따라 일본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관에 남아있는 생각에 아무런 의심을 갖고 있지.

13. 본인은 프랑스동료(프랑스대 그의 직원들과 더불어 잔류할 생각 했으나 중국(자유중국)대사는 특수 들어 서둘러 떠났습니다.

14. UN한국위원회에서는 모두 인였습니다. 대표와 사무국의 남자요 드랑 밀의 권총집에 자동권총으로 고 있었으며 많은 위원회가 긴급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 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

15. 본인 휘하의 직원들의 거취에는 서울에서 시가전이나 식량부족과 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여 잔류인원의 수자를 최소로 줄이는 명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는 미국대사관 직원과 함께 東京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후의 그들의 관하여서는 본인은 모르나 이런 일들 시에 완전히 보고 처리되었습니다. 두 사람 블레이크(Blake)와 오웬(Owen) 본인을 돋기 위해 남도록 했습니다.

16. 6월 27일 미국인들이 떠나간 후 조용하였고 별 사건이 없었으나 밤이 전투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6월 28일 아침 마침내 부하구이 시오세이 일서

17. 그날 오전 중에 북한군의 한 장교가(당시 헨트 신부와 로드 판무관과 함께 본인이 기거하고 있었던) 본인의 집에 와서 하인을 포함하여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과 지위를 적어갔습니다. 그는 본인에게 우리들이 결코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하였으나 공사관 안으로 어떤 사람도, 특히 미국인 혹은 남한인을 들이지 말도록 경고했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날과 그 다음날에 붉은 완장을 한 공산당원이 공사관 마당으로 들어와 총과 자동화기로 위협하면서 공사관 소속의 3대의 자동차와, 영국선박회사의 한 직원이 떠나기 전 공사관 마당에 말려 놓았던 한대의 자동차를 그들에게 양도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18. 그 후 우리는 7월 2일 저녁까지 비교적 평화로움 속에서 지냈으나 그날 보안대 소속의 무장군인이 도착하여 우리 다섯 사람(헨트 신부, 로드 판무관, 블레이크, 오웬씨, 그리고 본인)을 그들의 차로 함께 경찰국까지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몇 가지 공식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며 약 30분 안에 공사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계속되는 심문을 받으며 약 36시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되었으며 그 후 트럭에 태워져 밤중에 북한의 수도 평양으로 호송되었습니다.

19. 서울의 경찰서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장면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녀 한국인들이 심문을 받기 위해 방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심문받는 도중에 가장 동물적인 방법으로 매맞고 밭로 채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책상에는 한 장교가

고 있었고 옆방으로부터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심문관은 친절하게도 자기는 책상의 혼전의자 위에서 웅크리고 자면서 우리에게는 그의 막사의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하였지만 우리는 거의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었고 세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20. 평양의 조그만 방에서 5일을 보낸 후 우리는, 발견되어 체포된 다른 모든 외국의 민간인이 점차로 모여들기 시작한 평양의 외곽지대에 위치한 한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를 가운데는 쿠퍼 주교, 성공회의 메어리 클레어 수녀, 런던 <옵서버>(Observer)紙의 필립 딘(P. hilip Deane)씨, 성 콜롬반 선교회의 빈란司教, 크로스비, 카나반 신부, 프랑스의 대리공사, 그의 직원, 프랑스 통신사(Agence France Presse) 북파원인 모리스 샹탈루(Maurice Chanteloup)씨, 약 12명의 프랑스 성직자와 수녀, 교황청 대표, 수많은 남·녀 미국인 선교사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러시아인, 타타르인, 한국인과 결혼한 유럽여인을 포함한 국적불명의 여러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한명의 스위스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1. 이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후 본인은 귀하의 전임자 故에네스트 베빈(Ernest Bevin)씨에게 본인의 형편을 알리고 본인과 함께 있는 영국시민들의 이름을 통지하기 위한 전보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본인은 天津으로 가라는 지시를 담은 회답을 받았으나 북한당국은 이 지시대로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이 통신문을 접수했음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음식물은 형편없었고 전물에는 벌레가 들끓었으며 밖에서 운동을 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감시인들은 무뚝뚝하였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했으며 일 반적으로 말해 평양의 이 학교에서 보낸 기간은 가장 불쾌한 시기였습니다. 학교건물에 있는 동안 중요인물인 듯한 한 북한관리는 본인과 본인 동료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당국의 보호 하에 억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안대의 대령인 또 다른 직원은 본인의 외교관 신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영국정부가 미국과 손잡고 북한에 대항하여 싸우므로 본인과 모든 다른 영국민간인들은 평화가 재건될 때 까지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 1950년 9월 5일, 그들은 우리 모든 일행을 역으로 데리고 가 압록강변에 있는 만포(Manpo) 행 기차에 태웠습니다.

그 역에서 탑승했습니다. 프랑스외교관, 본인의 두 동료, 본인과 두 명의 언론인에게는 차대가 딸린 2등칸이 배당되었고 다른 민간인들은 보통의 딱딱한 좌석의 3등열차, 그리고 주제포로는 주로 무개화차에 실렸습니다.

25. 유엔군에 의한 공습의 위험 때문에 밤만 기차가 움직였고 따라서 미군들은 이때들에 가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9월 11일 만포에 도착하자 민간인 일행은 전에 검역소였던 곳에 수용되었습니다. 프랑스 동료, 본인, 그리고 본인의 직원은 다른 민간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좋은 숙사가 배당되었습니다. 미군들은 좀 거리가 떨어진 빈 공장에 수용되었습니다.

26. 민간인들에게 고기, 지방, 계란, 쌀, 밀가

탱크부대를 뒤따라 서울시내 진입한 북괴군 보병(1950. 6. 2)



루, 채소 등의 좋은 음식이 제공되었고 우리를 자주 강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세탁하도록 하였습니다.

27. 이곳에서 약 한달간 머물렀고 그후 강하구쪽으로 약 200마일 떨어진 「고선진」이라 불리우는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학교에 수용되었고 모든 일행은 자유로이 함께 섞여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약 3주간 머무른 후 우리는 걸어서 이를 걸리는 취암리라 불리우는 마을로 이동되어, 사용되지 않는 공장노동자의 假막사에 숙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오래되었고 어두웠으며 더럽고 침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음식물은 질적으로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모자랐으며 요리와 난방을 위한 인프로 찾기 힘들었습니다.

28. 이러한 우리 환경의 변화는 유엔군의 복상과 그에 따른 공산정부의 어려움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9. 10월 26일경 우리는 다시 도로로 만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행렬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이들고 병약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에게는 수송수단이 제공되었습니다.

30. 우리는 10월 30일 밤에 만포에 도착하였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든 민간인들은 미군 전쟁포로와 함께 열병하였고 한 북한소령은 우리가 엄격한 군사적 규율 하에 기나긴 행군을 할 것이며 어떠한 불복종도 가혹하게 처벌받을 것임을 알리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감시병들이 지금 까지의 보안군 대신에 무장한 감옥간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군 전쟁포로와 함께 목욕을 하고 옷을 세탁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31. 그때 대형이 떠나면서 미군 전쟁포로가 맨앞에 그 다음에 외교관그룹이, 맨 마지막에 민간인 일행이 따랐습니다. 많은 미군들은 명백히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질, 폐렴, 노출로 인한 추위와 일반적 피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32. 첫째날은 아무 일도 없었으나 밤에 우리는 모두는 다시 뜬눈으로 지새웠으며 삶은 옥수수 약간이 배급되었습니다.

33. 둘째날 우리의 행군길은 높은 산을 지나야 했고 거기서 눈바람을 맞아 몇몇 병사들은 낙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형을 지휘하고 있던 북한군 소령은 미군장교 한 사람을 불러 그가 그의 구역에서 두 사람을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자리에서 자동권총으로 그를 사살하였습니다.

34. 이 사건 이후 미국인들은 그들의 병자를 운반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긴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자 북한군 소령은 그의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즉 낙오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낙오했을 때 그들을 사살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약 90명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사살되었다고 후에 들었습니다.

35. 한 프랑스 수녀와 나이든 러시아 여인은 민간인 대열에서 낙오되어 다시 볼 수도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36. 네째날에는 구세군의 로드 판무관의 도움과 지지를 얻어 본인은 북한군 소령에게 민족인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벽두 사람들은 유

다음날 그는 이를 위해 한 대의 화물트럭을 제공했습니다. 메어리 클래어 수녀도 트럭에 태워진 사람들의 하나였으나 2·3일 후에 극도의 피로로 사망했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것을 본인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37. 약 100마일에 걸친 행군은 11월 8일 중강진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민간인들은 피로와 영양부족(우리는 하루에 단지 4~5 웅큼의 삶은 곡류만 받았고 밤에는 지붕이 없는 농가의 마당이나 헛간에서 잤습니다)으로 쇠약해졌고 그들 중 몇몇은 이질과 폐렴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수용된 학교건물은 냉기가 감돌 정도로 아주 추웠습니다. 우리는 약 1주일간 거기에서 머물렀고 다시 북쪽으로 약 10마일 거리에 있는 하정리로 이동하여 거기서 한국 농가에 수용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온돌」이라 불리는 한국식 온방마룻방 덕분에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38. 이곳에서 오웬씨와 본인은 폐렴으로 쇠약해졌고 헌트 신부도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콜롬반 선교회의 에이레인 카나반 신부도 또 한 이 시기에 죽었습니다. 외교관그룹과 다른 민간인들의 의료시설은 약품의 공급이 제한된 채 젊은 북한 간호병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본인의 병을 고치려고 페니실린을 구하기 위해 눈길을 가로질러 산을 넘어 10마일 이상을 걷기도 했습니다.

39. 하정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물들은 형편없었고 주로 양배추와 스프와 삶은 기장이었습니다.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 목욕이나 세탁 또는 청소를 할 물품과 시설이 없어

그러나 민간인, 외교관 그룹은 그 당시 매일 10명의 비율로 죽어가는 미군 전쟁포로와 교할 때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40. 1951년 2월 23일 외교관 그룹(외교)들과 합류한 두 명의 언론인 상틀루씨와 딘씨를 포함하여 프랑스 영사관과 영국 공사의 직원들을 말한다)은 하정리로부터 만까지는 자동차로 수송되었고 읍내에서 약 4일 멀어진 아주 훌륭한 농가에 수용되었습니다.

41. 이제부터는 보다 낳은 대우를 받을 :이며 여러 특별한 대우를 향유할 수도 있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어느 정도까는 충족되었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점차 개·되었으며 온수와 목욕과 세탁을 할 수 있는 누가 공급되었고 우리를 떠맡은 4명의 보안원은 공손하게 대우하는 등 합당한 조건으로 수용되었습니다.

42. 차례로 우리의 감시를 지휘한 몇몇 한 장교들은 대체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때로 그들은 우리와 어울려 탁구, 핸드볼과 같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 우리에게 익을 거리를 마련하는 수고를 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대개 러시아인 작이었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그리고 스턴의 저작, 소련의 잡지들, 「평화」선전 그리. 몇몇의 소련 고전문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공당 역사」(단기과정)의 복사를 몇 편도 받았습니다.

43. 의료혜택도 좋았습니다. 친절하며 능 있는 의사가 매달 약 2번씩 정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했으며 간호원이 매일 찾아와 일약,

저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칼슘과 몇 가지 다른 약을 많이 주사받았습니다. 둘자하니 우리의 식량은 이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로 인류 지식계층에게 제공되는 것이었고 우리의 감시인보다도 더 훌륭한 음식과 많은 담배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엔군의 공습으로 이 나라가 심하게 폭격됐음을 생각할 때 본인에게는 특별히 훌륭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44. 우리는 1953년 3월 20일까지 만포 가까이 있는 이 집에 있었으며 그날 블레이크, 딘, 오웬씨 그리고 본인은 프랑스 동료들을 남겨둔 채 갑자기 트럭을 타고 평양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우리는 평양에 도착하자 최고의 진심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장군들에서 시작하여 대령, 그리고 다른 장교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우리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약 2년동안 맛보지 못했던 설탕과 버터가 들어있는 훌륭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새 옷이 지금되었고 우리를 편안하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이 행해졌습니다. 약 10일 후 우리는 쿠퍼 주교, 로드 판무관, 그리고 친란 司教와 합류하였고 우리 모두는 가까운 장래에 석방되리라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45. 4월 8일 아침에 우리는 소련 정부의 요청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날 밤 우리는 두대의 지프와 트럭에 분승하여 압록강 하구 가까이 중국과의 국경선에 있는 신의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내내 여행하여 다음날 아침 중국 국경선을 통하여 安東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 전 모든 프린트물과 수기는 압수당했습니다.

安東에서 우리는 북경의 소련대사관에서

사람 모두 아주 친절하였고 만주리에 있는 소련국경까지 함께 여행하였으며 4월 13일에도 착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차에서 가장 훌륭한 객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동에서 봉천까지 우리는 침실이 달려있고 개인주방과 웅접실이 설치된 특별열차를 이용하였고, 봉천에서 만주리까지는 「평화열차」로 알려진 北京~모스크바간의 호화로운 특급열차의 침대차로 여행했습니다. 이것은 긴(관망차까지 포함한) 협은 파란색의 열차로서 형태가 고르고,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가 사치스럽게 장식된 것이었습니다.

46. 만주리에서 소련의 외국인 관광국이 우리를 인수하였고 국경통과의 모든 공식절차를 안내하여 모스크바행 특급열차에 탑승시켰습니다. 그들 대표는 또한 우리에게 잡비 명복으로 1,000루블을 주었고 우리 각자가 식당차에서 음식과 음료를 들 수 있도록 하루 60루블의 외상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47. 모스크바에로의 여행은 유쾌하였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모든 러시아인들은 무척 친절하였고 보드카의 취기에 힘입어 자주 우리들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휴가차 모스크바로 가는 한 운전기사는 우리 모두에게 키스하겠다고 졸랐으며 몸집이 매우 뚱뚱한 여러 여인들은 억지로 우리 일행 중의 고위 성직자들을 포옹했습니다.

48.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여왕폐하의 대사와 대사 영부인, 그리고 모든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하의 환영메시지를 받았는 바, 모두 충심으로 이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북으로 끌려가는 기나긴
대열에서 낙오된 1
그 자리에서 사살되

단을 지휘하는 롤만 장군 부처와 장교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50. 4월 22일 우리는 애빙顿에 착륙하였고 거기서 본인의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51.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인과 북한으로부터 같이 귀환한 사람들 모두는, 억류에서 석방까지 귀하 및 귀하와 힘을 함께 한 모든 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부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귀하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되찾았음을 실분 깨닫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일해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 4월 30일
비비안 홀트 배상.

안소니 이든 외무장관 귀하

외무성
런던, S.W.I.

1. 본인은 이미 따로 제출된 보고서에서 본인의 한국에서의 억류생활에 대한 간단한 설

하여 본인이 다소간 관찰한 바를 보고드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 1950년 7월 본인이 처음 북한에 갔 때 그 나라는 아직 실질적으로 전쟁에 의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UN군 공군의 은 거의 별 효과가 없었고 본인과 본인 반했던 자는 우리가 38°선에서 평양까지 고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하는 과정 도시 또는 촌락들 내에서 볼 수 있었던 한인들의 바쁜 활동을 하는 분위기에 깊은 명을 받았습니다.

3. 1950년 7월에서 1951년 1월까지 본 억류된 상황은 좀더 많은 인상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1년 2월 초 하중리에서 남포까르는 여행길에서 본인은 새로운 어떤 것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인이 따라간 길을 많은 촌락들이 파괴되었고 도시였던 민만포역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파괴의 짓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방관리들은 우리

해 의사가 처방한 칼슘과 몇 가지 다른 약을 많이 주사받았습니다. 들판하니 우리의 식량은 이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로 일류 지식계층에게 제공되는 것이었고 우리의 간시인보다도 더 훌륭한 음식과 많은 담배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엔군의 공습으로 이 나라가 심하게 폭격됐음을 생각할 때 본인에게는 특별히 훌륭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44. 우리는 1953년 3월 20일까지 만포 가까이 있는 이 집에 있었으며 그날 블레이크, 딘, 오웬씨 그리고 본인은 프랑스 동료들을 남겨둔 채 갑자기 트럭을 타고 평양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우리는 평양에 도착하자 최고의 진심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장군들에서 시작하여 대령, 그리고 다른 장교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우리의 시중을 들었답니다.

약 2년동안 맛보지 못했던 설탕과 버터가 들어있는 훌륭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새 옷이 지급되었고 우리를 편안하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이 행해졌습니다. 약 10일 후 우리는 쿠퍼 주교, 로드 판무관, 그리고 편란 司教와 합류하였고 우리 모두는 가까운 장래에 석방되리라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45. 4월 8일 아침에 우리는 소련 정부의 요청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날 밤 우리는 두 대의 지프와 트럭에 분승하여 압록강 하구 가까이 중국과의 국경선에 있는 신의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내내 여행하여 다음날 아침 중국 국경선을 통과해 安東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 전 모든 프린트물과 수기는 압수당했습니다.

安東에서 우리는 북경의 소련대사관에서 온 2명의 직원과 공식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 명의 중국인 직원을 만났습니다. 세

련국경까지 함께 여행하였으며 4월 13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열차에서 가장 훌륭한 객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동에서 봉천 까지 우리는 침실이 떨려있고 개인주방과 용접실이 설치된 특별열차를 이용하였고, 봉천에서 만주리까지는 「평화열차」로 알려진 北京~모스크바간의 호화로운 특급열차의 침대차로 여행했습니다. 이것은 긴(관망차까지 포함한) 짙은 파란색의 열차로서 형태가 고르고, 피카소의 「평화」의 비둘기가 사치스럽게 장식된 것이었습니다.

46. 만주리에서 소련의 외국인 관광국이 우리를 인수하였고 국경통과의 모든 공식절차를 안내하여 모스크바행 특급열차에 탑승시켰습니다. 그들 대표는 또한 우리에게 잡비 명목으로 1,000루블을 주었고 우리 각자가 식당차에서 음식과 음료를 들 수 있도록 하루 60루블의 외상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47. 모스크바에로의 여행은 유쾌하였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모든 러시아인들은 무척 친절하였고 보드카의 취기에 힘입어 자주 우리들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휴가차 모스크바로 가는 한 운전기사는 우리 모두에게 키스하겠다고 즐랐으며 몸집이 매우 뚱뚱한 여러 여인들은 억지로 우리 일행 중의 고위 성직자들을 포옹했습니다.

48.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여왕폐하의 대사와 대사 영부인, 그리고 모든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하의 환영메시지를 받았는 바, 모두 충심으로 이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49. 모스크바에서 공군기를 이용하여 베를린으로 갔으며 거기서 가토우 영국 공군비행



북으로 끌려가는 기나긴
대열에서 낙오원 교
그 자리에서 사살되

단을 지휘하는 콜만 장군 부처와 장교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50. 4월 22일 우리는 애빙顿에 착륙하였고 거기서 본인의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51.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인과 북한으로부터 같이 귀환한 사람들 모두는, 억류에서 석방 까지 귀하 및 귀하와 힘을 함께 한 모든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부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귀하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되찾았음을 심분 깨닫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일해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 4월 30일
비비안 홀트 배상.

안소니 이든 외무장관 귀하

외무성
런던, S.W.I.

1. 본인은 이미 따로 제출된 보고서에서 본인의 한국에서의 억류생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38°선 북쪽에 놓여있는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

하여 본인이 다소간 관찰한 바를 보고드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 1950년 7월 본인이 처음 북한에 갔을 때 그 나라는 아직 실질적으로 전쟁에 의해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UN군 공군의 흐른 거의 별 효과가 없었고 본인과 본인을 반했던 자는 우리가 38°선에서 평양까지 그리고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 또는 촌락들 내에서 볼 수 있었던, 한인들의 바쁜 활동을 하는 분위기에 깊은 명을 받았습니다.

3. 1950년 7월에서 1951년 1월까지 본인 억류된 상황은 좀더 많은 인상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1년 2월 초 하중리에서 남포까지 르는 여행길에서 본인은 새로운 어떤 것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인이 따라간 길을 떠 많은 촌락들이 파괴되었고 도시였던 만포 만포역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파괴의 잣더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방관리들은 우리를 거주할 수 있는 웬만한 방칸이라도 발견해 려고 상당히 고초가 많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4. 본인이 만포 인근지방에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동안 본인은 전혀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갖지 못했으며 그들의 경제적 조건들, 또는 공산정권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만큼의 상황들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내자들로부터 보안군에 대한 다소의 관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 동안 정치적인 학습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중 정치적인 책을 읽기 위해 마련된 정기적인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후에 본인이 북한의 여러 다른 지역 내의 경찰서에서 보았던 「공산당역사」의 한국어 번역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5. 본인의 한국어 실력은 본인이 안내자들과 함께 정치적 문제를 토론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말에 능통한 두 명의 프랑스 동료들은 상당히 흥미 있는 화제들에 대해 일본말을 잘 구사하는 북한장교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일었던 현상은 그들 대부분이 공산주의의 장점에 대하여 그리고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서 열정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주로 칼 마르크스가 사학 초기 산업 혁명 시기 당시에 영국 노동자 조건에 기초를 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6. 본인과 대화를 나눈 북한장교들이나 북한주민들은 모두 자기들을 도와준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입이 닮도록 칭찬을 하며, 그들이 연합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궁극적인 북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도, 심지어 우리가 위치한 인근 지방에 대한 UN공군의 극심한 폭격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에게 앙심을 품거나 나쁜 감정을 갖고 불편이를 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

시에 없었습니다. 예제로 → D.O. O.K. 세세로 O.S.

시리즈 조선 역사 드라마 모자와 이조이

적이고 정중하였는데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7. 1953년 만포에서 평양, 평양에서 안동까지 총합 300마일의 거리를 걸어서 여행한 것은 전쟁 2년 반이 남긴 결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길을 따라 있는 모든 촌과 도시들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다른 곳으로 소개되지 않은 거주자들이 들에 파헤쳐진 비참한 웅덩이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판은 생기질이 잘 되어 있었고 앞으로의 추수에 관하여 기록적인 작황이 되리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8. 나는 길을 따라 다리를 폭격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수많은 훈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불가능하게 된 다리는 별로 없었고 더욱 중요한 지점에서는 잠정적으로 대체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들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9. 밤에 도로 위에서는 남북으로 움직이는 소련 세 트럭들의 엔진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UN공군이 물자 공급 행렬을 철저히 분쇄시키지 못했음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완전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언덕들은 많은 터널과 방공호로 마치 벌집과 같았으며 그리고 관리들과 국민들은 1939년에서 '45년 전쟁동안 런던의 시민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평양 내에서는 외국산 상품들이 풍족했습니다. 이것들은 의류, 비누, 비스켓, 차, 설탕, 여러 통조림 종류, 공사용 폭발물들, 밀가루, 의약품 등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이나 소련 또는 다른

시리즈 조선 역사 드라마 모자와 이조이

규모가 점점 증가되었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 이었습니다.

11. 평양 내에서 본인은 영어를 구사하는 소령급 이상의 북한장교들과 또한 러시아인들과 상당히 여러차례 장시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위에 언급했던 다른 안내자들처럼 확신에 차 있었고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어지는 방법을 통한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명예롭게 결론지을 수 있는 깨끗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12. 우리가 풀려날 것이라고 통지를 받은 그날 몇몇 북한 기자들이 본인과 본인의 친구들을 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억류기간 동안 나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영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전쟁은 항상 그 속에 알려든 모든 이들에게 불쾌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항상 본인의 불쾌한 경험보다는 즐거웠던 기억들을 회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추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영국에 돌아가면 나는 한국 내에서 평화를 심기 위한 어떠한 도움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3. 외교관 집단들을 정치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어떤 심각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한번은 매우 당황하게 보이는 보안장교 한 명이 우리를 찾아와 신경질적으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제서야 차분히 말했습니다.

프랑스인들에 대해서 노리어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 이후 그는 두 번 다시 우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민간인들은 외교관 집단들과 별도로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바로는, 이들은 더 심한 정치적 선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유물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도 빙屈을 주지 않았고 러시아인과 타타르인들은 혁명적 공산주의에 대한 경험을 직접 피부로 당하여 본 사람들이 있어서 북한인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어떤 것에도 별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14. 미군 전쟁포로들에 대해서 선전자들은 조금 더 성공적이었는데 결국 장교들과 사병들로 「평화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지 않았으며 만포에서 중강진까지 행군을 한 것 외에는 거의 미군포로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교육과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병사의 급료가 북한군 장군의 급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들도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의 업적이란 것이 그다지 큰 감명거리가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5. 나의 첫번째 보고서에서 많은 러시아족과 잡지들을 독서물로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읽을거리들은 우리들을 세뇌교육하기 위한 계략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책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었습니다. *

1953년 4월 30일
비비안 홀트 배상